

표준영정에 대한 연구*

— 공동체 의식과 감정통합의 균일화 과정

조은정**

| 국문초록 |

표준영정은 문중에 하사하거나 기념으로 남긴 공신녹권 등 초상화 제작문화에서 발원한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왕조사회의 습속이 권력의 의지에 의해 제도화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인물을 표준영정의 대상으로 지정하느냐에서부터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 위원회라는 조직이 관여하고 최종저공로 국가가 승인함으로써 사적 인물의 초상화는 공공화한다. 제작중 발생하는 ‘뽀진’의 준거는 시대의 양식과 함께 심의자와 발주자들의 타협선이다. 초상화인 영정이 ‘표준화’되면서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거론하게 되는 것은 제도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됨으로써 미술이 권력에 복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인물들의 이미지인 표준영정의 ‘표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표준영정이 미의 이념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 혹은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욕망의 반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초상화는 인물의 재현으로서 기능을 가졌다면 현대 미술가의 손에 의해 제작된 초상화는 ‘작품’으로 위치한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의 고증을 거쳐 허락을 받아 승인되는 제작과정은 미술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표준영정, 공동체의식, 민족기록화, 동상, 저작권

* 이 논문은 필자가 2014년 제 57회 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표준영정에 대한 연구:공동체 의식과 감정통합의 균일화 과정」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330).

** 한남대학교 대학원(arthistorian21@hanmail.net)

| 차례 |

1. 서론
2. 표준영정 제정과정
3. 표준영정 지정의 요소
4. 결론

1. 서론

한글을 창제한 성균 세종대왕에서부터 나라를 구한 명장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 그리고 훌륭한 삶의 귀감이자 예술을 보여준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 등 실재했으나 그 초상이 유실되어 모습이 전하지 않는 선현의 초상은 후대에 생성된 것이다. 실견(實見)하지 못한 채 인물의 초상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정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 모셔진 영정이나 교과서에 실린 선현의 모습 대부분은 표준영정(標準影幀)이다. 표준영정이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8호」 ‘영정·동상 심의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이다. 1973년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대통령 지시로 충무공의 진영을 통일하라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업은 5월 8일 국무총리 지시로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공고’를 통해 실시되었다.¹⁾ 선현의 영정을 정리하고 국가가 허가, 관리하는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표준영정 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표준영정이 지정되던 해인 1973년 1월에 정부는 전통문화를 개발하

1) 『관보』제6492호(1973년 7월 4일), 선현의 동상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문화공보부공고 제181호).

여 문예중흥을 이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때 미술계의 목표는 미술의 진흥을 위해 연례적인 국전 개최 이외에 ①한국미술2천년 ②새마을 및 경제개발상 기록 등 민족기록화 종합전 ③선사시대 청동기전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73년은 또 서울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동상 설립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해이다.²⁾ 동상에서 초상화로 매체의 변화는 있었지만 선현을 선정하고 그 모습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또한 국가가 선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의 독점을 의미하며 각종 사묘(社廟)나 집안에서 사적(私的)이거나 집단적 차원의 인물을 숭모하여 초상화를 제작하는 전통은 자연히 도태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물을 통해 기억을 공유하는 데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결국 표준영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표는 숭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일종의 억압구조를 띠게 된다. 발터 벤야민은 ‘몇 세대가 지나면 초상화는 그 작품을 그린 화가에 대한 증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³⁾ 그런데 초상의 인물과 괴리되어 작가에 귀속되는 초상화를 굳이 국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영국에서 초상화 박물관을 설립하면서 ‘미술품으로서의 초상화가 아닌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초상화’라는 개념을 선택한 것은 무기보다 예술, 궁정보다 국민을 선택한 상징이었다.⁴⁾ 표준영정 지정의 기준이 적용될

2) 서울신문사는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업무를 정리하며, 그동안 제작한 동상의 마케트를 서울시에 기증하였고 1973년 7월 4일부터 시청에서 동상의 마케트 전시를 하였다. 이로써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업무는 마감한 것이다. 「愛國先烈(애국선열) 동상26點(점) 市廳(시청)현관앞 등 진열」, 『경향신문』, 1973. 7. 4.

3) Richard Brilliant, *Portraiture*, London: Reaktion Books, 1991, p.151; 김영나, 「화가와 초상화」, 『미술사연구』 20, 미술사연구회, 2006, 24쪽에서 재인용.

4) 박지향, 「초상화로 구성된, 국민의 역사 -런던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의 시작-」, 『영국 연구』 30, 영국사학회, 2013, 107~138쪽.

수 있는 것도 역사적 기록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영정을 발주한 주체, 작가, 이를 심의한 위원들이 표준영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목적이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표준영정은 국가 혹은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그것은 의도된 공공성의 모습을 갖는다. 표준영정 심의제도는 국가가 미술의 최종결과물을 심의하는 제도를 합법화하였다는 점에서 권력 미술을 억압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2. 표준영정 제정과정

1) 애국선열 동상과 표준영정

표준영정 지정의 사회적 논의는 서울, 부산, 충무 등 여러 곳에 건립된 충무공 동상의 외모가 작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충무공 동상과 초상화의 외모가 문제시된 것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긴 때문이다.⁵⁾ 물론 표준영정 지정 논의 이전에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건립된 <민영환동상>이나 <안중근의사동상>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며 “애당초 박물관에다는 영정 한 폭씩을 고이 간직해서 모셨던 편이 나았을 지도 모른다.”는 동상보다는 초상을 제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상이든 초상이든 선택할 수 있던 근거는 선현의 인물상을 ‘계명적(誠命的) 심볼’로 규정한 데 있었다.⁶⁾ 동상과

5) 1953년 4월 19일자 『서울신문』은 한산도 제승당의 진영과 진해의 동상, 두 작품의 상이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기사화한 이유는 충무공의 모습이 교육과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윤효중은 진해 충무공 동상의 갑옷은 자신이 고안한 우리나라 것인데, ‘김은호의 초상은 중국옷’이라고 규정하였다. 갑옷을 기준으로 전통성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6) 「선열동상을 세운 의의」, 『동아일보』, 1959. 8. 7.

영정을 동일한 기능을 지닌 매체로 인식한 것은 이들 제작의 목적이 ‘교육’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상과 영정 지정에 앞서 1964년 5월 16일, 5.16기념일을 맞아 서울 태평로 녹지대에 ‘애국선열 석고상’이 섰다.⁷⁾ 전체 37위의 석고상은 국회문고 공보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서울대, 이대, 홍대, 서라벌대 조각과 학생들이 제작한 것이었다.⁸⁾ 민족정기의 양양과 선열에 대한 추모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전문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솜씨였으며 재료도



〈그림 1〉 『경향신문』, 1964. 4. 25.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다. 장마철이 지나자 먼지와 물을 머금은 석고상은 홍물로 변하였다. 급기야 10월 16일에 <최익현상>이 대좌에서 떨어져 파손되었다. 석고상들이 철거된 뒤에는 ‘동상으로 우수한 조각가들이 참여’하였다.⁹⁾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음에도 석고상으로 선현의 상

7) 『애국선열석고상 철거문제』, 『동아일보』, 1964. 7. 16. 사실에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안은 후에 애국선열동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 것 같다. “본래 추앙하는 선인들의 기념상이라는 것은 무슨 계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연고가 있는 장소에 개별적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가령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대왕의 동상을 세종로 한복판에 세운다든가 또는 한석봉의 공부하던 곳이라고 해서 그의 상을 필동에다 세운다든가 하는 식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분들을 추모하는 참된 기념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8) 『애국선현의 조상제막에 느끼는 일』, 『동아일보』, 1964. 5. 18.

9) 동상의 제작과정 등에 대해서는 조은정, 『한국 동상조각의 근대 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9,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1, 221~267쪽 참조.



〈그림 2〉 최우석, 충무공, 1929.

을 제작한 것은, 실력을 인정받은 조각가들이 동상을 제작할 당위성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듬해인 1965년 오죽헌에는 율곡기념관이 신축되었고 김은호가 제작한 <율곡 초상>이 어제각(御製閣)에 봉안되었다. 제전의 형식을 띤 ‘율곡제’는 이틀 동안 계속 되면서 유품 전시회, 백일장, 사생대회와 함께 진행되었다.¹⁰⁾ 진해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한 제사를 폐지하고 군향제를 열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성현의 영정을 봉안하고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도모한 선례였다.¹¹⁾

1970년 8월, 충무공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여 제작한 <충무공진영> 3점이 존재하고 그들의 생김새가 서로 같지 않으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상범, 김은호, 장우성은 모두 충무공기념사업회에서 발주 받아 영정을 제작하였지만 이들 기념사업회는 동일한 구성원들이 아니었다. 동상의 경우도 윤효중과 김세중이 제작한 모습이 또한 달랐다. 그리하여 이은상, 최영희, 최순우, 조인복 등에게 충무공의 표준적인 진영을 선택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들 또한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¹²⁾ 이 과정에서 ‘표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대통령령으로 표준영정이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문공부 주재로 영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던 것이다. 1973년 4월 28일, 충무공탄신일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각지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영정을 통일

10) 『제4회 율곡제 강릉 오죽헌서』, 『경향신문』, 1965. 10. 15.

11) 동상과 축제에 대해서는 조은정, 『권력과 미술』, 아카넷, 2009, 참조.

12) 『충무공 천의 얼굴...당국 영정표준화에 부심』, 『동아일보』, 1970. 8. 29.

하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는 지시에서 시작하여, 선현의 영정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규정은 1973년에 공표되었지만,¹³⁾ 이미 1970년에 영정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대 행정(行政)의 3S의 하나로 표



〈그림 3〉 이상범, 충무공, 1932.



〈그림 4〉 김은호, 충무공, 1950.

준화’가 진행된 것이었으며¹⁴⁾ 결국 표준영정의 급속한 제정으로 이어졌다.

선현 영정의 표준화는 공업, 도량형, 업무 등 표준화사업에 매진한 과정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1973년 10월에 문예중흥선언, 1974년부터 문예중흥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동상과 영정에 대한 논의도 이 시기의 기류와 함께한 것이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은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이 핵심 의제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중흥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 정책이었다.¹⁵⁾ 사회 전반의



〈그림 5〉 장우성, 충무공 표준영정, 1953.

13) 표준영정에 대해서는 조은정, 『역사 속에 살다-초상, 시대의 거울』, 전북도립미술관 2013년 도록 서문 참조.

14) 『충무공영정통일 시비』, 『동아일보』, 1970. 12. 24.



〈그림 6〉 윤효중, 충무공 동상,
1951, 진해.



〈그림 7〉 김세중, 충무공 동상,
1968, 서울.

민족문화 양양의 분위기 속에서 선현은 추앙되고,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나 영정은 관리되었다.

충무공 진영을 통일하라는 대통령 지시에서 시작한 사업은 1973년 5월 8일 국무총리 지시로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공고’를 통해 실시되었다. 선현의 동상을 건립하거나 영정을 제작하려는 민간단체는 ‘반드시 문화공보부의 사전협조를 받아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었다.’¹⁵⁾

전국의 동상과 영정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영정이나 동상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15)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 문예중흥5개년계획.

16) 1973-6호, 선현에 대한 동상 및 영정제작에 관한 지시, 국무총리지시 제6호.

1973. 4. 28 각하께서 충무공 영정
및 동상 통일문제 연구 지시

1973. 5. 8 선현에 대한 동상 및 영
정제정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6호)

1973. 5. 17 이충무공, 세종대왕 영
정 및 동상에 관한 간담회 개
최(결정사항)

0영정표준화에 따른 사회의
물의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
중요 영정 및 동상은 그대로
두고 새로 제작, 사용하는 것
만 표준화함.

0표준영정:이충무공-현충사
봉안본

세종대왕-세종대왕기념관 봉안본

1973. 5. 22. 위 간담회 결정사항을 각하께 보고

1973. 6. 5. 선현영정심의위 구성

ㄱ)심의회 구성

위원장:문화공보부차관

위원: 이은상, 이선근, 이영도, 최영희, 곽상훈, 손원일, 최순

우, 내무부지방국장, 문교부장학실장, 문공부문학국장

ㄴ)기능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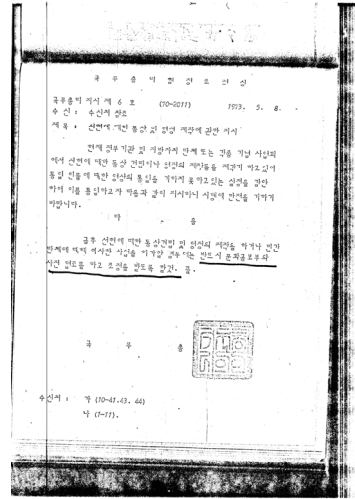
0선현의 대상 선정

0선현의 영정 및 상심의 기준작성

0표준영정 지정 및 제작심의

1973. 6. 25-7. 25 선현 영정 및 동상 실태조사

1973. 8. 17. 제1차 선현 영정 심의회의 개최



〈그림 8〉 1973-6호, 선현에 대한 동상
및 영정제작에 관한 지시,
「국무총리지시 제6호」.

(결정사항)

0영정심의 및 표준영정 기준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구성

0영정 표준화 대상 성형의 선정은 보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함.

0심의선정된 영정 및 동상 제작계획은 조사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토록 함

1973. 8. 24 선현 영정 및 동상 조사위원회 구성

ㄱ)구성

0사학가:최영희(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황원구(연세대 교수)

차문섭(단국대 교수)

민병하(성균관대 교수)

윤영석(국사편찬위원회 조사실장)

김철(문교부 편수관)

ㄴ)기능

심의회의 기능을 돕기 위하여 관계 전문적인 실무를 담당함.

0선현의 영정 및 동상 심의에 필요한 고증자료 수집 및 검토

0선현의 영정 및 동상제작에 필요한 관계 전문분야의 사전 검토

0선현의 영정제작 및 동상 건립의 사후 확인

0기타 선현의 표준영정 제정에 필요한 사항

1973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1개월간 조사가 시행된 결과, 영정 72종 370점, 동상 32종 364기가 파악되었다. 이들을 선현별로 통합하여 정리하면 전체 79종 734점이었다. 즉 조사 당시 79위의 선현 영정이나 동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애국선열조상위원회에서 설치한 동상이나 고려대학교의 <김성수동상>이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의 <김활란동상>까지도 포함한 조사였지만, 대부분은 충무공과

세종대왕의 진영이나 동상이었다.

당시 이들은 선현의 동상이 100여 명이 넘는 유, 무명작가에 의해 제작된 탓에 선현의 모습이 각기 다르거나 고증이 되지 않았고, 재료가 조잡한 것(시멘트)이 많으며 작품상 졸렬한 것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심지어 액자에 넣어 봉안된 사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정을 사진으로 하여 대량판매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런 상행위의 단속여부가 문제됨’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작품에 대한 대책은 ‘철거’였다. 그 대상은 ①고중에 어긋난 것 ②외부가 파손되어 외관상 좋지 않은 동상 ③재료 등 문제로 극히 조잡한 것 ④예술적으로 극히 수준 이하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후속조치로 선현의 대상선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선열로서 민족적 추앙을 받고 있는 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107명) 그 중에서 선별한다. 둘째 표준영정 제작의 기준을 마련하고, 셋째 기준에 미달하는 영정은 처리안에 따라 폐기하며 넷째, 새로 제작하는 영정이나 동상은 기준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새로 제작하는 경우 심의절차의 기준은 ①영정, 동상의 모습과 의상이 고중에 맞도록 함 ②크기나 재료 사용에 있어서 선현의 품위를 유지토록 함 ③작품상 일정 수준에 달하도록 함이었다.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하는 선현 동상이나 영정의 제작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지만 민간단체에서 동상, 영정을 제작할 때는 국가가 지정한 위원회에서 제작지도를 받아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9월 12일 저녁에 곽상훈, 손원일, 이병도, 이선근, 이은상, 최영희, 최순우, 내무부지방국장, 문교부장학실장 등 9명은 ‘선현의 영정 및 동상 표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영정 107점, 동상 100점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0월에 발표된 결과는 3등급으로

나누어 C급에 해당하는 영정 94폭과 104기의 동상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중요사당에 봉안된 영정 94폭과 고증에 합당한 동상 39기는 A급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사당 이외에 봉안된 조잡하지 않은 영정 253폭과 고증에 맞지 않지만 학교나 교회 등에 설치된 동상 461기는 B급으로 감독기관에서 알아서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⁷⁾

1976년에는 선현의 동상 건립을 규제하고 선현 추모사업을 하는 경우 표준선현영정(標準先賢影幀)을 복사 봉안하는 방안을 권장하였다. 규제 이유는 ‘선현에 대한 충분한 고증이나 건립장소의 적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은 예산으로 마구 건립하여 선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¹⁸⁾ 이미 표준화로 공인된 도상을 사용하라는 의미였다.

2) 표준영정 현황

문화부의 표준영정 지정 의의는 “선현(先賢)들을 한 폭의 영정(影幀)으로 만날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생동하는 감동의 교훈”을 받기 때문이며 선현을 숭앙하여 영정을 제작하여 봉안하는 문화의 계승에 있었다. 영정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고¹⁹⁾ 표준영정의 당위성을 역사적인 초상화의 기능에서 간취하며, ‘영정 봉안작업의 계승’에서 표준영정 지정의 의미를 둔다. 이는 국민통합의 기제로서 선열의 초상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실상 국가가 대상인물을 선택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의 통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영정 지정 현황은 <표>와 같다.

17) 「문공부 동상 영정 대폭 폐기」, 『동아일보』, 1973. 10. 24.

18) 「선현동상 건립을 규제」, 『동아일보』, 1976. 6. 24.

19) <http://www.kculture.or.kr/korean/portrait/portraitAbout.jsp> 2016년 4월 20일 검색 사이트 확인.

<표> 2016년까지 표준영정 목록

지정 번호	선현명	작가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장처
1	이순신	월전 장우성	1973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
2	세종대왕	운보 김기창	19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
3	정약용	월전 장우성	19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4	퇴계 이황	현초 이유태	19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5	강감찬	월전 장우성	1974	서울특별시	낙성대
6	을지문덕	운보 김기창	1975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7	율곡 이이	이당 김은호	1975	강원도	강원도 오죽헌(강원 강릉)
8	우륵	일랑 이종상	19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9	김유신	월전 장우성	1975	충청북도	길상사(충북 진천)
10	충북 조현	운보 김기창	19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칠백의총관리소에 대여 관리)
11	고산자 김정호	운보 김기창	19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2	무열왕	운보 김기창	1975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3	문무왕	운보 김기창	1975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4	광개토대왕	일랑 이종상	19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5	유관순	월전 장우성	1978	충남 천안시	지정해제: 지정번호78 참고
16	윤봉길	월전 장우성	1978	충청남도	충의사(충남 예산)
17	단 군	홍숙호	1978	(사)현정회	단군성전
18	원효대사	일랑 이종상	197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9	추사 김정희	이한철	1978	문공부	국립중앙박물관
20	윤 관	일랑 이종상	1979	문숙공기념사업회	윤관장군 묘역내 영당(경기 파주)
21	장보고	일랑 이종상	1979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2	김홍도	일랑 이종상	1981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3	정몽주	월전 장우성	1981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24	최치원	남계 이규선	1983	문공부	국립중앙박물관
25	이차돈	우현 송영방	1983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6	일 연	정탁영	1985	문숙공기념사업회	윤관장군 묘역내 영당(경기 파주)
27	김대성	김창락	1986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8	황 희	미 상	1986		화산서원(전북 진안)
29	이성계	미 상	1986		경기전(전북 전주)
30	김대건	문학진	1986	공인성회	솔뫼성지(충남 당진)

지정 번호	선현명	작가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장처
31	유인석	조규환	1986	-	이초룡(충북 제천)
32	신사임당	이당 김은호	1986	올곡기념사업회	오죽헌(강원 강릉)
33	신채호	정광일	1986	단재선생추모회	단재사당(충북 청원)
34	최익현	채용신	1986		모덕사(충남 단양)
35	이제현	진감여	1986		국립중앙박물관
36	안 향	미 상	1986		소수서원(경북 영풍)
37	최무선	신영상	198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38	유성룡	석영 최광수	198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39	의 천	석영 최광수	198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40	허 준	석영 최광수	1989	한국전통미술인회	국립현대미술관
41	이규보	석영 최광수	1989	여주이씨 문순공파 대종회	종친회사당(경기 강화)
42	정 조	이길범	1989	경기도 수원시	효행기념관(경기 수원)
43	철종	석영 최광수	1989	화재관리국	덕궁
44	영 조	석영 최광수	1989	화재관리국	덕궁
45	석봉 한호	홍용선	1990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6	김 욱	오낭자	1991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7	최 영	최대명	1991	동주최씨대종회	덕봉사(강원 강릉)
48	의상대사	손연칠	1991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9	김수로왕	오낭자	1991	(재)가락국사적개발 연구원	송선전(경남 김해)
50	허왕후	오낭자	1991	(재)가락국사적개발 연구원	송선전(경남 김해)
51	설 충	권오창	1992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52	김천일	김영철	1992	전남 나주시	정열사(전남 나주)
53	김부식	권오창	1993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54	정도전	권오창	1994	삼봉선생기념사업회	문헌사당
55	계 백	오태학	19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6	홍 수	오태학	19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7	성충	오태학	19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8	왕산악	김영철	1994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59	이 익	손연칠	1996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60	백제도미부인	윤여환	1996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부인사당
61	허난설헌	손연칠	1997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62	구형왕	김종섭	1997	(재)가락국사적개발 연구원	덕양전(경남 산청)
63	구형왕비	김종섭	1997	(재)가락국사적개발 연구원	덕양전(경남 산청)
64	성삼문	손연칠	1998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지정 번호	선현명	작가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장처
65	이지함	권오창	1998	한산이씨 토정공파종회	국립중앙박물관
66	왕건	이길범	1999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7	장영실	박영길	2000	(사)과학선현장영실 선생기념사업회	호서대학교
68	양만춘	손연칠	2001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9	서동	최 응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0	선화공주	최 응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1	무왕	최 응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2	무왕비	최 응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3	강수	권오창	2003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미술관
74	김윤후	권오창	2003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미술관
75	성왕	권오창	2004	충남 부여군	부여 정립사지 전시관
76	신립	박성태	2004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박물관
77	정문부	윤여환	2005	의정부시	의정부시 충덕사
78	유관순	윤여환	2007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 추모각
79	논개	윤여환	2008	경남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80	맹사성	권오창	2008	충남 아산시	맹씨행단 유물관
81	박맹년	윤여환	2010	대구 달성군	육신사기념관
82	김만덕	윤여환	201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83	이사부	권오창	2011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84	조심태	이길범	2011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85	송상현	권오창	2012	청주시	충렬사
86	대조영	권희연	2012	속초시	서울대학교 박물관
87	류방택	조용진	2012	서산시	(국립)서산 류방택 천문기상 과학관
88	윤선도	이종상	2005	의정부시	의정부시 충덕사
89	김병연	왕형렬	2012	경기도 양주시	화암사지박물관
90	정효상	권오창	20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부조묘 영정각
91	장계향	박대성	2013	경상북도	영양군 정부인 안동장씨 유물전시관
92	신개	박서립	2013	충청북도 음성	양줄재 평산신씨 문화공파종중
93	정희계	동강 권오창	2014	경기도 안성시	양영공 사당
94	허균	동강 권오창	2014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박물관(강원도 강릉시), 영인본: 허난설헌생가터 사랑채
95	서희		2015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서희역사관
96	정견모주	손연칠	2015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고령군)

2015년까지 표준영정은 96기가 지정되었다. 표준영정은 아니지만 최제우(崔濟愚, 1824-1864), 최시형(崔時亨, 1827-1898), 김인국(金演局) 등 동학의 주요 인물상은 김은호에 의해 초상화가 제작되었다.²⁰⁾ 이들을 추앙하는 종교적 성격의 구암문중이 주문하였던 때문이다. 민중적인 추앙을 받고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은 표준영정으로 제정된 적이 없다. 표준영정이 없는 그의 모습은 작가마다 다르게 해석한 다양한 <전봉준 초상>으로 존재한다.

표준영정의 지정번호와 연도를 통해 충무공 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충무공의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마다 진해에서 봉행되던 충무공 탄신 제사는 아산의 현충사로 이관되었고, 동상 앞에서의 제사는 금지되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제작한 <충무공동상>은 1973년부터 국가적 공식행사에서 영정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²¹⁾ 그리고 군항제와 연관되어 해군의 행사로 격화된 과정에서, 제사의 주체와 역사적 사건의 환기를 통해 정통성을 소유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민족적 성소가 동상이 선 곳이 아닌 충무공 탄신지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해군이 주체가 되어 건립하고 이승만대통령이 제막식에 참석하여 반공을 역설하였던 사건, 즉 6.25전쟁을 기억하는 충무공동상으로부터 구국의 위업이라는 상징은 변화하지 않았을지라도 ‘전통’의 인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현충사가 대대적으로 복원됨에 따라 공간적 재현을 통해 지배적 공간을 실현하였다.²²⁾ 새로운 지

20) 조은정, 『근대미술과 채용산-거울과 사진, 한국 근대초상화의 닮음과 진실』, 『인물미술사학』 7호, 한국인물미술사학회, 2011, 23쪽.

21) 충무공 동상의 제1공화국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2003년 제46회 역사학대회에서 필자의 발표 「1950년대 전반 한국미술에서 타자읽기」참조.

22)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331쪽.

배자는 해마다 현충사의 초상화 앞에서 의례를 행함으로써, 재현된 공간을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세종로에 <충무공동상>을 건립하고 충무공 탄신지인 아산에 <충무공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 안치함으로써 이승만대통령 시대의 충무공동상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장우성이 그린 <충무공초상>이나 김은호가 그린 <울곡 이이 초상> 등은 후에 표준영정이 된 경우이다. 오랫동안 사당에서 봉안되던 초상화가 그대로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철종초상>은 소실되다 남은 어진을 보고 그린 초상이다. 이전에 모셔지던 영정이 그대로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예로는 이한철(李漢喆, 1808-?)이 그린 <추사 김정희초상>, 작자미상의 <황희초상>, 그리고 <태조 이성계 진영>, 채용신이 그린 <최익현초상>, 원나라 화공 진감여(陳鑑如)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제현초상> 그리고 <안향초상> 등이다.

과거 인물의 재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이사부(異斯夫) 표준영정을 제작하기 위한 회의에서 작가 권오창은 “복식이 정해지면 전문가들로부터 고증을 받고, 여러 차례 심의와 감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상·영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 결정을 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하며 “또 최근의 표준 영정은 전신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신상은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하였다.²³⁾ 그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인지 현재 반신상의 표준영정은 김대건, 김대성, 김정호, 김홍도, 신채호, 안향, 우륵, 원효, 유성룡, 유인석, 을지문덕, 의상, 이익, 이차돈, 이황, 장보고, 정몽주, 정약용, 최치원, 황희 등 20여 점으로 예전에 지정된 영정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이 제작된 경우는 거의 전신상이다.

현대 초상화는 사진이나 기존의 초상화가 있는 ‘원본이 있는’ 작품으

23) 『‘동해왕 이사부’ 표준 영정 포럼 “반신상 배제 전신상이 원칙”』, 『강원도민일보』, 2009. 8.10.

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사적이며 공적인 초상화가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누구나 초상화를 제작할 수 있고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현대에 과연 초상화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서구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초상화가 갖는 기념성과 표현으로서의 미술 그리고 전통미술 속의 일호불사론(一毫不似論)을 모두 수용한 한국의 현대 초상화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을 선택하고 어떤 양상으로 그려내는가 하는 것은 한 시대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는 눈이기 때문이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있음에도 초상화가 제작되는 것은, 그려지는 인물에 대한 숭모의 마음과 사진 이전에 존재하던 전통의 기록성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얼굴이지만 그 인물이 ‘그려졌을 때’ 역사적인 선택의 문제에 당면한다. 공신도상(功臣圖像)에서 표준영정에 이르기까지 초상의 선택은 국가 혹은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이 초상화의 공공성이었다.

특정 인물을 재현하는 초상화의 오래된 원칙인 ‘핍진(逼真)’에는 이미 대상에 대한 재현이 해석에 의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실제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실물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을지라도 그것은 당대의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비롯한 인물들이 그림의 용도를 논할 때 산수화 위주로 지나치게 정신성을 강조하자 이에 대한 공격의 용어로서 사용한 때문이다.²⁴⁾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인 핍진은 현대 초상화에서는 닮음을 넘어서 정신을 포함한 대상의 묘사라는 의미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여러 유형의 미술 장르로 존재할 수 있지만 ‘초상화’라는 범주는 여전히 전통에 기반한 사회적인 미술의 영역에 위치한다. 표준영정을 제정하고 숭모하는 선열의

24) 초상화의 핍진 문제는 김재은, 『茶山 丁若鏞의 畫論』,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과 이보다 먼저 논문이 발표되었고 후에 출판된 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조선후기 초상화와 카메라 옵스큐라, 우리가 아직 몰랐던 세계의 교양)』, 생각의 나무, 2008. 참조.

용모를 위원회를 통해 통일하고, 심의하는 과정은 ‘전통’을 통해 표준영정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상상의 공동체』에서 베네딕트 앤더슨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상상의 공동체’가 민족이라고 정의내린다.²⁵⁾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당시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백인 이주민의 후손(크리올)들이 유럽 본토인과 다른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민족의 개념이 유럽과 제3세계로 퍼져 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민족’은 상상의 관념인 것이다.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가져오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고안들에서 발원하기도 한다. 앤더슨에 따르면 ‘상상의 공동체’는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이다. 혈연을 기반으로 한다고 믿는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현상을 직시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 이론을 통해 뒷받침되며, 표준영정이라는 시각체계를 통해 인간 정신을 균일화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표준영정 지정의 요소

현재 표준영정은 문화, 과학, 학문, 정치, 국방이라는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화와 학문, 과학과 정치 등의 구분은 모호한데, 전통적인 학문의 목표가 선정이라는 정치적인 데 있었던 때문이다.

결국 표준영정은 유교적 사회질서를 기반으로 한 문화이자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 유교적 이념은 정치적 봉건

2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성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유교적 덕목의 강조를 통해 국민의 공동 의식과 감정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근간이 되는 충효사상을 강조하는 인물들이 표준영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충무공영정의 지정과정을 필두로 하여 확인할 수 있는 표준영정 지정에서 중요시 하는 고종의 문제는 그것이 과연 절대성을 지닐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동반한다.

1) 충무공

충무공 영정을 표준화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자 김은호가 제작한 충무공의 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김은호 자신도 “충무공의 영정은 이미 1950년 4월 24일 공인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충무공기념사업회 이사 이은상에 의해 공인 선포되었고 1963년 문교부장관에게 재확인 신청서를 내어 공인확인서를 받았으므로 당국이 논의를 통해 장우성이 제작한 초상화와 비교하여 다시 충무공 영정의 통일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²⁶⁾ 1950년 4월에 제작한 김은호의 충무공영정은 이중화, 정인보, 안호상 등 14인의 영정심사위원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었다.

1970년 12월에 충무공영정통일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서구)는 충무공영정 단일체제운동을 벌이며 문교부의 공인과 국정교과서에까지 게재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각계인사 100명의 동의와 함께 김은호의 영정을 표준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장우성 측에서 그가 제작한 충무공영정이 1952년 당시 충무공사업회 이사장 조병옥으로부터 정식 의뢰를 받고 여러 고증을 거쳐 제작한 것이라고 하였던 때문이다. 장우성이 제작한 영정은 현충사에 봉안하기 위해 의뢰한 것이었다.

26) 『동아일보』, 1970. 9. 4.

그런데 최종적으로 1973년에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은 장우성이 제작한 현충사에 소장된 영정이었다. 장우성이 6.25전쟁중에 그린 충무공의 영정은 갑옷을 입은 모습이 아닌 관복본이었다. 장군의 위용을 보여주는 갑주본이 아니라 굳이 관복본으로 그린 것을 보면 전통적인 초상화와 영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제작이라고 보겠다. 전통적으로 무인의 경우도 공신도상 등에서는 관복본으로 제작되었고, 대부분의 영정이 관복을 입은 모습인 것이다. 물론 시를 짓고 문집을 남긴 인물로서 거친 무인이 아니라 선비적인 면모가 강했던 지식인으로서의 충무공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충신이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표현하자면 무인(武人)보다는 선비의 절개를 보여주는 문인의 이미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이들이 문인들이어서 무인보다는 문인의 이미지를 중히 여겼을 수도 있다.

“인사를 드리고 이충무공 영정 때문에 선생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 분은 대뜸 ‘『정비록』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육당(최남선)은 거두절미하고 ‘선비 같다고 해서 나약한 선비로만 그리면 안 돼.’ 하고 썰기를 박았다. 그 순간 머리에 어떤 섬광 같은 것이 스쳐갔다. 침착하고 엄숙한 얼굴 모습, 번쩍이는 눈빛, 태산같은 위엄. 이것이 충무공의 진면목이리라는 확신이 섰다. 참고로 할 겸 충무공의 출생지 현장을 답사하고 이충무공의 후손을 만나 얼굴 모습, 골격 등도 살펴보고 싶었다. 며칠 뒤 권선생과 함께 기차편으로 아산 온양에 내려 ‘현충사’에 갔다. 종손 이용렬 씨 집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충무공의 체취가 어린 유물들을 접해보고 장검(長劍), 각대(角帶) 등을 스케치했다.”²⁷⁾

27) 장우성,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봉안』, 『화단풍상70년』, 미술문화, 2003, 195쪽.

아무리 문관복을 입었을지라도 충무공은 이 시대에 국난극복의 표상이었다. 따라서 문(文)을 숭상하는 전근대적인 전통에 더하여 그가 나라를 지킨 무인이었음을 나타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영정에서의 극복방법은 얼굴을 ‘씩씩하게’라는 소극적인 방식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 흔적으로 강한 눈썹 정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유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용모아치려 수근지사(容貌雅飭 如修謹之士)”를 작가의 시각에서 해석한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충무공 영정의 표준영정 지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물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눈, 발주자의 욕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수단이라는 제도 아래서 권력

의 지향점과 그것을 운영하는 이들의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 조우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선택의 문제는 미술사상 오래되고도 여전히 존재하는 주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충무공영정 제정 문제는 동상에 대한 판단과도 연계되어 있다. 1977년 광화문에 선 김세중(金世中, 1928-1986)이 제작한 충무공동상을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러 이유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표준영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09명을 선현으로 지정하고 영정 표준화사업을 펴는 영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곽상훈, 이은상, 이선근, 이병도, 최영희, 최순우, 손원일 등 각계 인사와 내무부지방국장, 문교부장학실장, 문공부문화국장 등 11인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그림 9〉 『경향신문』, 1976. 4. 28.

내렸다 할지라도 선현이 생존했을 때 직접 보고 그린 초상화를 근거로 하지 않는 한 말썽의 소지는 남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²⁸⁾ 1968년에 제작된 동상이 1973년에 지정된 표준영정의 용모와 닮지 않았음을 언급하는 것은 역으로 표준영정의 준엄성을 표하는 것, 즉 국가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2) 무인의 모습

신라가 동해안의 삼척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사부의 초상은 전신 갑주를 착용한 입상이다. 고대 복식사의 충실한 재현을 보이는 이 초상화는 가야에서 출토된 철제갑옷 등을 참고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구에 목갑옷을 착용하고 다리 보호대까지 차고 있지만, 기능적인 면 이외에 위(威儀)로서의 갑옷 양상이 아직 완벽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한 고증’에 기반한 무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상화에서 동반되는 인물의 이상화(理想化)가 비단 얼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지로 갑옷을 입은 알렉산더대제의 초상화는 실지 갑옷의 메두사보다 더 생생하게 그의 가슴에서 그리고 방패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본다. 보지 않은 세상의 사람과 그의 복장에 대해서는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는 동시대인의 욕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표준영정에서, 적어도 의복에서는 창작을 기반으로 한 작가의 욕망이 아닌 실증을 기반으로 한 고증학자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같은 무장(武將)이어도 신숭겸(申崇謙, ?-927)의 초상화는 표준영정이 아니다. 평산 신씨 문중의 주문에 의한 것이었다. 1975년 김기창은 자료수집을 하러 일본에도 다녀왔다고 알려졌으며, 무장의 복장은 학

28) 「철저한 고증과 높은 예술성을」, 『경향신문』, 1977. 5. 25.

계의 고증을 받아 1975년 12월 25일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초상화는 1976년 4월 21일에 대구의 제실에 임시 봉안하였다가 1977년 12월 25일에 장절사에 봉안되었다.

호피를 밟고 선 거의 등신대에 가까운 이 초상은 몸체는 다소 평면적이지만 얼굴과 손은 세밀한 묘사와 음영을 강하게 보여서 사진과 그림의 결합과 같은 근대기 초상의 일면을 보인다. 더불어 한손에 긴 칼을 쥐고 나머지 한 손은 허리에 대고 있으며 금빛의 화려한 갑옷은 왕건의 갑옷으로 바꾸어 입고 생을 마감한 신숭겸의 정절을 떠올리게 한다. 세밀한 피부의 표현을 통해



〈그림 10〉 권오창, 이사부 표준영정, 2011.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지만 화려하며 도식화된 옷의 표현은 마치 근대기 신장탱화(神將幀畵)에서 얼굴이나 손은 명암을 주고 몸은 화려한 갑주를 입고 망토를 두른 도상과 유사하다.

표준영정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무인의 상은 ‘고증’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사부영정>은 당대의 고고학적 결과를 반영하여 무인의 갑주를 표현하였다. 당대 갑옷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세월의 때를 안은 채 사실의 모습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대의 현실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반면, 애초에 표준영정이 아니라 문중의 사적인 욕망에서 제작된 <신숭겸영정>은 어차피 신숭겸이라는 인물에 대한 헌정의 의미가 컸고 문중의 자랑으로서 영웅을 보여주는 것이

제작 목적이었다. 따라서 가장 멋진 장군의 모습을 작가는 불화에서 보이는 장군상의 도상을 원용하여 금빛 번쩍이는 장식과 용수를 휘날리는 싹싹함이 넘치는 인물이 탄생하였다. 비록 당대 고중에 맞는 복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능묘석인의 무인상을 보면 반드시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영웅적 모습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광개토대왕, 김유신, 양만춘 등 갑옷을 입은 인물들은 1970년대에 지정 될 당시는 갑옷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상상의 모습이 어느 정도 용인된 것 같다. 그것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무인의 옷을 입은 십이지상이나 불교의 도상에 익숙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제작된 초상의 경우는 역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조선시대 초상화는 관복 본, 그리고 당대의 복식이라고 생각한 경우를 따르고 있다. 결국 보지 못하고 완벽히 재현할 수 없는 과거의 모습을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통해 작가적 상상력이나 과장이라는 비현실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림 11〉 장우성, 유관순 초상, 1986.



〈그림 12〉 윤여환, 유관순 표준영정, 2007.

3) 고증

표준영정 15호였던 장우성이 그린 유관순 영정은 해지되었고 2007년도에 78호로 윤여환이 그린 영정이 재지정되었다.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감옥에서 고문으로 부풀어올라 흥해진 얼굴 그대로를 그려서 16세의 소녀가 아닌 중년의 여성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지속되던 중 결정된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장우성의 이름이 친일행적이 논란되던 때이기도 했다.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에 충실히 재현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을지라도 선현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외부적 요인이 작용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13〉京城婦人科病院長 工藤武城 所藏 退溪肖像

표준영정은 선현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시대의 일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공간에서 초상화는 인물에 대한 기억이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공신상 등을 통해 당시 사회가 원하는 인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창구이기

도 하였다. 불가에서 설잠스님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애초에 승복본으로 그려졌던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초상화가 유복본으로 그려진 이유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충절 인물로 강조된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 유교학자들인 서인에 의해 김시습이란 인물이 지닌 특성 중 국가의 규율에 충실히 따랐고, 본인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산 ‘충절’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인생의 다른 의미를 성찰하였을 수도 있던 승려모습의 김시습은 소거되고 유가의 옷을 입은 김시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초상화가 남아지거나 어떤 변화에 의해서든 당연한 이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시대에 맞는 의복으로 다시 해석되는 것은 결국 초상화가 제작되거나 이모될 당시의 사회, 정치적 명분에 따라 인물이 다시금 해석되고 그것을 초상화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영정을 제작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퇴계 이황의 경우, 20세기 초두에 유행한 유복본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



〈그림 14〉 이유태, 퇴계 이황 표준영정, 1974.

시대의 유학자들은 강인한 인물이었으며 근대기의 유학자들은 의병을 이끌 정도의 기개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유학자를 글이나 읽는 문약한 선비로 생각하였고, 이황의 초상에서도 그러한 생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초상화에서 확인한다.²⁹⁾

29) 최재목, 『퇴계상(退溪像)의 변모-초상화(肖像畵)를 통해서 본 선비상(像)의 변천에

1997년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허난설헌의 초상화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당시 작가는 고증을 통해 가장 그 시대에 근접한 조선여인이 모습을 창출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가 확충됨에 따라 복식과 머리장식에서 차가 있음을 작가는 후에 인지하게 되었다. 작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대의 이미지에 근거한 새로운 허난설헌 영정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미 표준영정은 지정되었으며, 작가가 새로이 만든 초상화는 표준영정이 아니다.



〈그림 15〉 손연철, 허난설헌 표준영정, 1997. 〈그림 16〉 손연철, 허난설헌, 2009.

특히 여인의 초상화인 경우, 그 선례가 거의 없으므로 모습을 개현하는 데에는 당대의 시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임당의 초상에서 머리 장식 등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5만원권을 제작하면서 김은호가 그린 표준영정이 있음에도 이종상에게

대한 시론(試論)』, 『퇴계학보』 130, 퇴계학연구원, 2011, 205~241쪽 참조.



〈그림 17〉 윤여환, 김만덕 〈그림 18〉 박대성, 장계향 표준영정, 표준영정, 2010, 2013.

사임당의 초상화 제작을 의뢰한 것은 굳이 화폐에 각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작방식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유통되던 김만덕 초상화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제작한 모습이나 <장계향 초상>은 각

기 다른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장과 머리장식의 유사성으로 인해 크게 다른 인물로 부각되지 않는다.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의 자양영당에 봉안되었던 영정은 도난을 맞았으며, 표준영정은 조규환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6년 지정되었다. 현재 유인석의 초상은 여러 점이 있는데 유복에 복두를 쓴 모습이다. 의병장으로서 “무력항일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모든 지사(志士)와 사우(士友)들은 국내에 머물지 말고 간도로 건너와 함께 수의(守義)하여야 한다’며 ‘수화종신(守華終身)’할 것을 주장하였”던 의병장의 호기로운 모습보다는 선비로서의 모습이 초상에 담겨진 것이다.

표준영정의 제정과정은 결국 누구의 표준영정을 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이후 발생하는 ‘뺨진’의 준거는 결국 시대의 양식과 함께 심의자와 발주자들의 타협선이다. 초상화인 영정이 ‘표준화’되면서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거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대개

가 사진을 가지지 못한 과거의 인물들인 표준영정의 ‘표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표준영정을 통해 자신의 미의 이념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 혹은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시화하고자하는 주체들의 욕망이 반영된 미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적 차원의 초상화가 표준영정으로 공공화되었을 때 갖는 강제성은 또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국가 혹은 문중이 발의하여 작가에게 의뢰하고 제정한 표준영정은 복사와 유포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작가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한 작가의 허락과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대에 표준영정은 어떤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점 또한 직시해야 한다. 과거 초상화는 인물의 재현으로서 기능을 가졌다면 현대 미술가의 손에 의해 제작된 초상화는 ‘작품’으로 위치한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의 고증을 거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제작과정은 표준영정이 단지 사회적 문제만이 아닌 미술 내부의 문제에서도 검증되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³⁰⁾

4. 결론

표준영정의 인물에 대한 해석은 시대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작가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예술품으로의 위치에서 표준영정을 대할 수 있는 시선은 유보되고 있다. 표준영정 지정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하였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가가 제정한 표준영정은 인쇄, 복사 등에서 지정한 인물의 영정만을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저작권법에

30) 그런 점에서 2013년 배재정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주목할 점이다.

따라 사용시 작가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심지어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작가의 작품으로서 표준영정을 인정할 때 상업용도로 인쇄를 하거나 사용할 경우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표준영정 지정의 목적과 과정에서 모순이 확인된 지금, 표준영정 존재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초상화가 ‘표준영정’으로 제도화됨으로써 가문 혹은 씨족의 통합이나 기념의 장치가 국가적인 공동의 경험이나 기억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표준영정’ 지정 대상은 표준영정을 제정하는 주체의 욕망이 반영된다. 게다가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인물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들이 가진 대상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표준영정에서 구현되기를 요구한다.

표준영정은 전통의 공신도상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왕이나 애국적 행위를 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서 문중에 하사하거나 기념으로 남긴 초상화 제작문화에서 발원한 것이다. 국민통합의 기제로서 선택한 표준영정은 인물에 대한 해석을 소수가 독점하고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다수에 의한 다양한 해석을 막는다. 역사 혹은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시점에서 파악되고 위치지어질 수 있다. 순혈주의를 버린 21세기에 혈통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영정을 사회의 통합의 이미지로 채택한 방안이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 강관식, 『조선시대 초상화를 읽는 다섯 가지 코드』, 『미술사학보』 38, 미술사학연구회, 2012.
- 김미정, 『1960-70년대 한국의 공공미술: 박정희 시대 공공기념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민수, 『한국 화폐의 초상과 기억의 죽음』,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6.
- 김수행,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 김영나, 『화가와 초상화』, 『미술사연구』 20, 미술사연구회, 2006.
- 김영작, 『Nationalism 원리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상의 위상』, 『국제정치논총』 23, 한국국제정치학회, 1983.
- 김용민, 『루소 정치철학에 있어서 일반의지와 애국심』, 『정치사상연구』 8,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 김창균, 『화승 신겸과 불화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목수현,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1, 중앙일보사, 1979.
-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15,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5.
- 박의경, 『루소에 나타난 애국심과 시민의식: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의지의 두 가지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39-5, 한국정치학회, 2005.
- 박지향, 『초상화로 구성된 국민의 역사 - 런던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의 시작-』, 『영국 연구』 30, 영국사학회, 2013.
- 박청아, 『한국 근대초상화 연구-초상사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17, 2003.
- 박혜성, 『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변종필, 『蔡龍臣의 초상화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양승민, 『매월당 김시습 초상화의 개모(改模) 과정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8호, 열상고전연구회, 2013.
- 윤범모, 『역사위인이 인물화에 특별한 역량』, 『계간미술』 27, 중앙일보사, 1983.
- _____, 『기념조각 그 문제성의 안팎』, 『계간미술』 13, 중앙일보사, 1980.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정석범, 『蔡龍臣 肖像畫의 形成背景과 樣式的 展開』, 『미술사연구』 13, 미술사연구회, 1999.

- 정진술, 『임진왜란 선무공신과 이순신의 영정』, 『이순신연구논총』 18, 이순신연구소, 2012.
- 조선미, 『17세기 공신상에 대하여』, 『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_____, 『채용신의 생애와 예술-초상화를 중심으로』, 『석지 채용신』, 국립현대미술관, 2001.
- 조은정, 『표준영정에 대한 연구 : 공동체 의식과 감정통합의 균일화 과정』, 『국가권력과 역사서술』 57회역사학대회발표요지집, 2014. 10.
- _____, 『역사 속에 살다-초상, 시대의 거울』, 전북도립미술관 2013년 도록.
- _____, 『근대미술과 채용신-거울과 사진, 한국 근대초상화의 닮음과 진실』, 『인물미술사학』 7, 한국인물미술사학회, 2011.
- _____, 『채용신 유럽 초상의 인물과 사상에 대한 연구』, 『인물미술사학』 2, 한국인물미술사학회, 2006.
- _____, 『1950년대 전반 한국미술에서 타자읽기』, 『역사 속의 타자읽기』 46회역사학대회발표요지집, 2003.
- _____, 『한국 동상조각의 근대 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9,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1.
- _____, 『한국의 초상미술-이상과 허상에 꽃피다』, 전북도립미술관 전시 서문, 2012.
- 조인수, 『경기전 태조 어진과 진전의 성격:중국과의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왕의 초상』, 국립전주박물관, 2005.
- _____, 『조선 후반기 어진의 제작과 봉헌』, 『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_____, 『조선초기 태조 어진의 제작과 태조 진전의 운영:태조, 태종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 _____, 『초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미술사학보』 29, 미술사학연구회, 2007.
- 진준현, 『19, 20세기 사대부 초상화』, 『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채효영, 『박정희 정권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기록화 사업 : 《구국위업편》, 《전승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와 예술』 8, 동아시아문화학회, 2010.
- 최재목, 『퇴계상(退溪像)의 변모-초상화(肖像畵)를 통해서 본 선비상(像)의 변천에 대한 시론(試論)』, 『퇴계학보』 130, 퇴계학연구원, 2011.
- 고종희, 『르네상스의 초상화 또는 인간의 빛과 그늘』, 한길아트, 2004.
- 김은호, 『서화백년』, 중앙일보, 1977.
- 김혜승, 『한국 민족주의-발생양식과 전개과정』, 비봉, 2003.
-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 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조선후기 초상화와 카메라 옵스큐라, 우리가 아직 몰랐던 세계의 교양)』, 생각의 나무, 2008.
- 정호기,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열화당, 1983.
- 조은정, 『권력과 미술』, 아카넷, 2009.
- 최인진, 『한국사진사』, 눈빛, 1999.
-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아트, 2009.
- 발해 고왕 대조영 표준영정 제작 추진위원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한국화전공, 『발해 고왕 대조영 영정 제작 경과보고 백서』, 2012.

| Abstract |

A Standardized Portrait

— A Manifestation of Community Spirit and a Process of Emotional
Homonization

Cho, Eun-Jung

A portrait of an ancient sage found in public places suggests a particular look of the personage even though it was produced without viewing the real person. It is called a standardized portrait supported by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structions No. 178, which is also known as “Portrait and Statu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a standardized portrait is defined as “a portrait that is produced through deliberation of the Portrait and Statue Regulations Committee and designated as a government standard portrait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system began in 1973. The president at that time instructed to standardize existing portraits of Admiral Yi Sun-shin on Yi’s birthday, April 28th, and the prime minister announced a deliberation procedure to designate a standardized statue or a portrait on May 8th. Initiating construction of a statue of Yi, the government officialized as standardized portrait of Yi and has reproduced and distributed it for public needs.

This demonstrates how the government has occupied the power to determine who to be respected. It was usually a private admirer or a group of admirers who initiated production of a portrait. This tradition, however, has ceased because the government insists that community spirit is reinforced by sharing the same historic figures through their standardized images. By doing so, the government not only reserves absolute authority to select a historic figure, but also unifies and controls

people's emotion by limiting the object of respect.

To be presented in a public place, a portrait should possess either public implications of the subject or at least its own artistic value. There are important historic figures whose standardized portrait has never been appointed. For instance, Jeon Bong-jun (1855-1895) is one of Korean people's popular heroes; however, there is neither a standardized portrait nor an official portrait of him. Instead, there are a number of his portraits that have been created through various artists' interpretations and imaginations. This implies that the standardized portrait system, on one hand, directs people to stay away from utilization of expressive works of art to interact with their own history and historic figures.

The government's ambition for homonization of Korean society by emphasizing the lineage has to be reconsidered in the 21st century which no longer goes with traditional pure blood custom. It is time to discuss about what the governments should do, instead of reiterating the shared historic experiences of the society, to strengthen people's social connectedness in this new era. In fact, the idea of standardized portrait originates from the tradition that a king or meritorious retainer in an ancient society has produced and remained a portrait in a way to reward their patriotism. This underlying idea of standardized portrait reveal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conserve their power over people by following the tradition from the previous monarchy.

Designation of a standardized portrait inherently involves certain questions like who should be represented or how close the depiction is to the subject. In reality, regarding the depiction, the criteria have to be negotiated with the artistic style of the period and the perspectives of a deliberator and an ordering body. However, there are more fundamental questions emerged. First, when a portrait from the past is designated as a standardized portrait, what aspects or elements of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the present-day idea of "standard"? For instance, the

designated portrait might be a work which naively delivers the painter's own bias toward a particular ideology of beauty, certain interpretations of the subject, or limited view of the era; and any of them may not properly satisfy the idea of "standard." Second, what is the boundary between individual and public rights surrounding a portrait? The systematic designation of a standardized portrait ultimately aims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A portrait that was created in the past has a clear function that it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 However, a portrait that is produced in the present time is generally acknowledged as a work of art, which inevitably involves a copyright issue.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an artist and the public function of the work as a government standard portrait. Lastly, the autonomy of art is also questionable for a new production of a standardized portrait because an authoritative committee takes a role in the deliberation and designation process.

Key Words: Standardized Portrait, Community Spirit, Picture of National Records, Statue, Copyright

· 논문투고일: 2016년 3월 5일 ·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6일 · 게재결정일: 2016년 4월 20일
